

지역 매아리

김제시, 현충일 추념식 거행

김제시는 제63회 현충일 추념행사를 6일 성산공원내 충혼탑광장에서 거행했다.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국토방위의 성전에 참여하여 호국의 신으로 산화한 전몰장병의 영령에 대하여 위훈을 추모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동시에 그 유가족에게는 위로와 조의를 표하는 추념식이었다

이날 추념식에서는 이후천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하여 보훈 단체장과 유가족, 유관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공무원, 학생, 시민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과 조포발사, 헌화·분향, 이후천 시장권한대행의 추념사, 현시낭송, 김제시립합창단의 현충일노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후천 시장권한대행은 추념사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평화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분들이 존경받고 후손들이 명예와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추념식 행사에 앞서 이후천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유관기관장등께서 순동에 있는 군경묘지를 참배하여 헌화 분향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환경의 날 새만금 바람길 정화활동

김제시 환경과(과장 이석)는 지난 5일 제23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진봉면 새만금 바람길 일대 걷기 행사 및 정화활동을 추진했다.

환경의 날은 1972년 제27차 UN총회 인간환경회의 개막일인 5일을 기념하여 "세계환경의 날"로 지정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6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올해로 스물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들어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환경문제에 보다 더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김제시 환경과 직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봉면 망해사를 시작으로 거전마을 까지 이어지는 새만금 바람길을 걸으며 주변 정화활동을 하는 등 새만금 발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석 환경과장은 "제23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연보전 실천에 앞장서는 의미 있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완주,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일환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모집

완주군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완주군은 2018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 일환 희망키움통장I,II 및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하며 저축하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통장별 신청대상 및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다.

희망키움통장I은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평균 36만원(4인가구 월소득 165만원 기준)을 국가에서 적립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II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4인가구 기준액 225만원)여야 한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을 적립 지원해 3년 후 720만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본인이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1:1로 매칭해 적립해준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만15~34세인 경우에 가입 가능하며, 본인 적립액은 없으며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준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사회복지과(290-2152)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력

추진상황 2차 보고회

김제시는 지난 5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시장 권한대행 및 전 실과소장이 배석한 가운데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2차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얼마 남지않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 대비하여 5월 집행실적 점검과 6월 집행실적 제고방안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는 한편 사업부서, 예산부서, 회계부서간 협조체계를 강화한 자리였다.

김제시는 신속집행 대상사업중 정부의 중점사업인 일자리 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파급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사업(SOC) 등의 경우 신속집행 추진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긴급입찰, 선금지급, 계약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집행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이후천 김제시 시장 권한대행은 "상반기 평가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김제시는 지난 5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시장 권한대행 및 전 실과소장이 배석한 가운데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2차 보고회를 열었다.

를 유도하기위해 전부서가 협력하여 적극적인 절차하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제시는 전년도에 상반기에 목표 대비 112.82%를 달성하여 2년 연속 도내 1위를 차지한바 있으며 하반기

에도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총 1억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교부받은 바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전국체전대비 환경정비 만전

완주군이 2018년 전국(장애인)체전을 대비해 종합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2월과 3월, 4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주요 도로변과 마을 입구 등에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주경기

장이 인근 익산에 위치한 만큼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매일 진공청소차를 운행해 도시미관은 물론 도로면치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철인 6월을 맞아 논밭 인근에 적치중인 농업을 폐비닐을 중점 수거하기로 하고 이장회의와 1마을 출장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하

는 등 수거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2018년 전국(장애인)체전은 오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삼례, 봉동, 용진, 소양, 고산 등 5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강무장 환경위생과장은 "전북에서 15년 만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인 만큼 관내를 찾는 선수단 및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고 청정한 완주 이미지를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청소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청춘 통하였느냐! 시즌2' 성료

김제시보건소, 세대 간 소통 마음행복프로그램 진행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8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세대 간 소통 마음행복프로그램인 '청춘 통하였느냐! 시즌2'를 지난 4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청춘, 통하였느냐'는 지난해에 이어 진행되는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지역정신건강캠페인 및 마음행복 연계사업으로 정서적인 돌봄이 필요한 학생과 우울감 있는 독거어르신이 정서적 교감을 통해 상호 의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소통하여 지역의 건강한 마음정화작용을 목표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4개월에 걸친 스크리닝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정신건강상담, 심리지원 활동 프로그램으로 지원했다. 프로그램 대상자는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그룹홈을 이용하는 65세 어르신 중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선정했고 김제여자중학교와 연계하여 교육복지대상 학생 10명이 참가했다.

선정된 10명의 어르신과 학생들은 우울극복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접목하여 상호 의지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적극적인 정서지지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짝꿍이 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청춘, 통하였느냐'는 어르신들과 학생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여사의 공간인 이리랑 문화마을을 방문했다. 일제강점기 근현대사를 짚어볼수 있는 기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학생들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할머니의 마음건강회복을 돕고 할머니들은 학생들에게 지난세월을 이야기 하면서 우울감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직원들 양파 수확 팔 견어

기획감사실 직원 24명 농가 찾아

완주군청 직원들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일손을 보았다.

5일 완주군은 기획감사실(실장 한병삼) 직원 24명이 일손이 부족해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봉동읍 구미리의 양파 농가를 찾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진행 오후 진행된 양파수확에서 직원들은 농가로부터 양파수확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로 작업에 투입돼 일사불란하게 양파 수확을 마쳤다. 또한 매해 영농철마다 농가일손을 도우면서 직원들의

영농일도 한층 속편해가고 있다.

일손을 도움 받은 농가는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힘들었는데, 적극 도와줘서 수일이 걸리는 일을 단시간에 해결해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한병삼 기획감사실장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농촌일손 돕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완주군은 본격적인 농번기철을 맞아 고품화로 수확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5일 완주군은 기획감사실 직원 24명이 봉동읍 구미리의 양파 농가를 찾았다.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character. Text includes 'Mulberry Wine', '부안강산명주',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alcohol content.